

2018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100 분		
지 원 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 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가) 근대 사회에서는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벤담의 파놉티콘(panopticon)뿐만 아니라, 대중 매체 특히 텔레비전의 출현으로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하는 방식인 시놉티콘(synopticon)이라는 것도 등장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대중매체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로 다수의 시선이 더욱 확장되고, 소수 권력의 노출이 증대되면서 이러한 시놉티콘 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파놉티콘에서 감시 대상이었던 다수가 오히려 '감시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각종 댓글과 SNS들은 감시 주체로서의 다수가 소수 권력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함으로써 역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 즉 인터넷의 발달은 시놉티콘의 역감시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나) 오늘날 감시는 정보처리과정에 기초한 다양한 일상 활동 속에 기초하고 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점검과 시험을 받고, 평가되며, 값이 매겨지고 판정받는 것을 허용한다. 사람들은 감시되는 환경 속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는 혜택, 예컨대 신용카드의 편리함, CCTV의 안전성, SNS의 정보와 재미 때문에 그것이 초래하는 감시의 위험을 허용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감시 권력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감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쉽게 순응하고 감시를 받아들인다.

(다) 오늘의 통제사회는 특수한 파놉티콘적 구조를 보여준다. 서로 격리되고 고립되어 있는 벤담식 파놉티콘의 수감자들과는 반대로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네트워크화되어 서로 맹렬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고립을 통한 고독이 아니라 현대 사회 사람들의 과도한 커뮤니케이션이 권력에게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시선을 보장해준다. 디지털 파놉티콘의 특수성은 무엇보다도 그 속의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를 전시하고 노출함으로써 파놉티콘의 건설과 유지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파놉티콘적 시장에 전시한다. 노출증과 관음증이 디지털 파놉티콘인 인터넷을 살찌운다. 주체가 외적인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발전적인 욕구에 의해서, 즉 자유로운 주체의 선택이라는 생각 속에서 스스로를 노출할 때 디지털 파놉티콘이라는 통제사회는 완성된다.

1-1. 현대 사회에서 ㉠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나)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90자 이내) (30점)

1-2. 현대 인터넷 사회속의 '대중'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 (가)와 (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체'와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들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10자 이내) (30점)

(가) 남곽자기(南郭子綦)가 책상에 기대 앉아 하늘을 우러르며 후 하고 길게 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멍하니 있는 모습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잊은 것 같았다. 안성자유(顔成子游)가 그 옆에서 모시고 있다가 물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몸이 마른 나무 같아지고, 마음은 불 꺼진 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책상에 기대신 모습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십니까.”

남곽자기는 대답했다.

“㉠지금 나는 나 스스로를 잊어버렸다. 너는 그걸 알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 땅과 하늘의 통소 소리에 취해 나 자신을 잊어버렸다. 너는 사람의 통소 소리는 들어봤을 테지. 그러나 땅의 통소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네가 혹시 땅의 통소 소리는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늘의 통소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안성자유가 말했다.

“어떻게 하면 그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까?”

“땅의 소리에 대해 알려주마. 대지가 내쉬는 숨결을 바람이라고 하지. 이것이 일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그 큰 바람이 한번 일었다 하면 지상의 모든 구멍이 요란하게 울린다. 숲속의 나무들이 뒤흔들리는데, 아름드리나무들이 송송히 구멍이 나 있어서 제각기 다르게 생겼다. 거기서 온갖 소리들이 나는데 바람이 멎으면 모든 구멍이 다시 고요해진다.”

안성자유가 말했다.

“땅의 통소 소리는 여러 구멍의 소리이고 사람의 통소 소리는 피리 소리군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통소 소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남곽자기가 대답했다.

“한 줄기 바람이 대지에 불면 대지상의 모든 구멍은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소리인 것이다. 땅과 하늘의 통소 소리는 자연만물의 소리이지. 나는 지금 그 소리에 흠뻑 취해 있단다.”

- 장자, 「제물론(齊物論)」

(나) 수오재(守吾齋)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신이 거처하는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나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별떡 일어나 이렇게 스스로 말하였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피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두기가 어렵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이다. 어렸을 때에 과거(科擧)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 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서 나아가 검은 사모 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미친 듯이 대낮에 커다란 길을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새재를 넘어 아득한 유배지인 바닷가의 대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곳에 이르러서야 나는 나를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는데, 뒤돌아보니 내가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오고 있었다. -<중략>- 나는 나를 간신히 붙잡아 이곳에서 함께 머물렀다.

오직 나의 큰형님만이 언제나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를 ‘수오재’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

2-1. (가)의 ㉠과 (나)의 ㉠은 그 표면적 의미는 유사한 듯하나, 그 실제적 의미는 매우 다르다. ㉠과 ㉠이 어떤 의미인가를 각각 80자 이내로 기술하십시오. (50점)

㉠

㉠

2-2. (나)의 ㉠에 대응될 수 있는 것을 <보기>의 시에서 직접 찾아 쓰시오. (20점)

과자의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यो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몰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원손잡ियो
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 — 악수를모르는원손잡ियो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로마는
거울이아니었던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라도했겠소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또꽤담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꼭섭섭하오

- 이상, 「거울」

17개 8년 도학 교경 대년북 논) 술(A

(가) 과학이 전문적인 학문분야가 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기존의 불합리한 사고와 편견을 없애고 ㉠객관적 지식을 제공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근대 계몽주의자들이 이성을 강조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계몽주의는 무지한 인간이 성숙한 이성을 통해 구습에 사로잡힌 미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과학적 탐구는 오늘날 자연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넘어 인간의 삶의 세계조차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 모든 이해는 선입견을 내포한다. 선입견 또는 편견이 없는 순수한 중립적 관찰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문화와 전통의 산물인 개념과 가치체계를 포기하고 관찰 대상에 순수하게 접근할 수 없다. 선입견은 우리 자신을 역사적 전통과 연결시켜주는 것으로서 지식을 얻는 데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조건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성을 강조하기 위해 권위와 전통을 선입견을 가진 것으로 배척하는 계몽주의는 선입견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권위는 명령이나 맹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이성적 판단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전통도 권위의 한 양태이다. 전통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타성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인정되고 배양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성찰을 통해 자유롭게 선택된 것이다. 전통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일부이며, 범레이고, 우리 자신의 인식이다. 이성은 역사성을 가진 것으로서 권위나 전통과 대립관계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 속에서 탄생한다.

(다) 실증과학은 완전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몰역사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현대 실증주의는 인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맥락조차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계산할 수 있는 사실들의 탐구에서 다루도록 한다. 이러한 태도는 눈앞에 있는 사실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유지에 몰두하게 한다. 다른 한편 이해의 선입견을 강조하는 것도 보수적인 권위주의의 형태를 띠 수 있다. 이성의 역사성을 내세워 전통을 절대화하는 것은 비판적 성찰의 힘을 약화시킨다. 전통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독립적인 판단기준이 허용될 수 없다. 전통과 권위에 기초한 이해를 강조하는 것은 은연중에 지배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계몽주의가 전통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류 역사의 진보는 기존의 권위와 전통에 대한 도전의 역사이었으며, 계몽주의는 이성의 비판능력을 보여준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다.

3-1. (가)의 ㉠에 대해 어떤 비판이 가능한지 (나)와 (다)를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140자 이내) (35점)

3-2. (가)의 ㉡에 대한 (나)와 (다)의 입장은 다르다. (나)와 (다)의 입장(비판 또는 옹호)이 무엇인지 이유를 들어 차이를 설명하시오. (100자 이내) (25점)

3-3. (다)의 입장에서 (나)의 문제점을 비판하시오. (80자 이내) (20점)

‘음운’, ‘음운자질’ 그리고 ‘음절’은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데 꼭 필요한 개념이다. 국어의 ‘물’, ‘불’, ‘풀’, ‘뿔’은 단어의 초성인 ‘ㄹ’, ‘ㅂ’, ‘ㅍ’, ‘ㅍ’만 달라 뜻이 구별된다. 이렇듯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각 음운은 ‘음운자질’ 혹은 ‘변별자질’로 불리는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음운들 간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ㄹ’, ‘ㅂ’, ‘ㅍ’, ‘ㅍ’은 모두 두 입술에서 나는 ‘입술소리’로 ‘순음성’이라는 음운자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ㄹ’과 ‘ㅂ’, ‘ㅍ’, ‘ㅍ’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ㄹ’은 ‘울림성’과 ‘비음성’이라는 음운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ㅂ’, ‘ㅍ’, ‘ㅍ’은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전자는 목청의 진동이 동반되는 ‘울림소리’이며 코로 공기를 내 보내면서 내는 ‘비음’이지만, 후자는 ‘안울림소리’이며 코가 아닌 입으로 공기를 내보내는 ‘구강음’이다. ‘ㅂ’, ‘ㅍ’, ‘ㅍ’도 ‘기식성’*과 ‘긴장성**’이라는 음운자질상의 차이로 인해 예사소리, 거센소리 및 된소리가 된다. ‘잇몸소리’인 ‘ㄴ’과 ‘ㄷ’, ‘ㅌ’, ‘ㅍ’, 그리고 ‘여린입천장소리’인 ‘ㅇ’과 ‘ㄱ’, ‘ㅋ’, ‘ㆁ’간에도 동일한 음운자질상의 차이가 있다.

‘음절’은 화자가 쉽게 독립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언어 단위인데 중성인 모음을 중심으로 그 앞, 혹은 뒤에 초성, 혹은 중성인 자음이 올 수 있다. 한글은 음소 문자이면서도 발음의 단위까지 고려하여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 썼다. 이렇게 모아쓴, 즉 합자한 각 덩어리가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는 ‘음절문자(syllabary)’이다. 가령 *경-북-대-학-교*는 다섯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덩어리가 음절을 나타내므로 다섯 음절로 구성된 단어이다.

‘음운’, ‘음운자질’, ‘음절’은 언어학자가 이론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만든 개념들이 아니라 화자들의 마음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즉 ‘심리적 실체성’이 있는 개념들이다. ‘심리적 실체성’이 있는 개념이란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할 때 적용 내지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뜻이다. 영어화자들은 종종 두음전환이라는 말실수를 범하는데 ‘츄스키와 할리’라는 학자들의 이름을 ‘홈스키와 찰리’로 단어의 첫 자음을 전환할 때가 있다. 자음 ‘ㅈ’과 ‘ㅎ’을 ‘ㅎ’과 ‘ㅈ’으로 바꾼 말의 실수는 화자가 ‘ㅈ’과 ‘ㅎ’를 독립된 음운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프로이드는 가난한 환자가 의사에게 *pill*(알약)이라는 단어 대신 *bill*(계산서)을 잘못 쓴 실수를 보여주었다. 이 실수는 ‘안울림소리’인 [p]를 ‘울림소리’인 [b]로 교체하였는데 음운자질인 ‘울림성’을 독립된 음운자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네티즌들이 *지못미*시켜주지 *제해 지안해*와 같이 각 단어의 첫 음절을 모아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은 각 단어의 첫 음절인 *자-못-미*를 각각 독립된 단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기식성(氣息性): 두 성대를 멀리 떨어뜨려서 목청을 통과하는 기류의 양이 많은 소리가 갖는 특성
 ** 긴장성(緊張性): 목청의 긴장을 동반하며 만들어지는 소리가 갖는 특성

※ ‘음운’, ‘음운자질’ 및 ‘음절’이 ‘심리적 실체성’이 있는 개념 들임을 보여주는 예들은 위 마지막 단락에서 보인 예들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생활이나 언어놀이에서도 발견된다. 아래 제시된 세 문제에서 괄호 속에 제시된 ①, ②, ③ 중에 적절한 하나를 고르고, 그것을 고른 이유를 밑줄 친 부분에 적으시오.

4-1. 다음 문장에서 *북문*을 실제 발음상으로는 [봉문]으로 발음한다. (20점)

경대 *북문*[봉문]이 어느 쪽입니까?

위의 현상은 ① 음운, ② 음운자질, ③ 음절이 실제로 화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함을 보인다. 왜냐하면 _____ (50자 이내) _____ 때문이다.

4-2. 다음 예들 중에서 (가)와 (다)에는 발음상의 변화가 없지만 (나)와 (라)에서는 유음 [리]이 탈락하여 실제 발음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20점)

- (가) 울--+다 > [올다]
- (나) 울--+는 > [우는]
- (다) 살--+다 > [살다]
- (라) 살--+시다 > [사시다]

위의 현상은 ① 음운, ② 음운자질, ③ 음절이 실제로 화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함을 보인다. 왜냐하면 _____ (50자 이내) _____ 때문이다.

4-3. [가]의 동요 <산토끼>의 가사를 [나]처럼 바꿔 부른 적이 있을 것이다. (20점)

[가]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 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나]
 끼토산 야끼토 룰디어 냐느냐?
 충강 충강 서면뛰 룰디어 냐느냐?

위의 [가]를 [나]로 바꾸는 언어놀이는 ① 음운, ② 음운자질, ③ 음절이 실제로 화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함을 보인다. 왜냐하면 _____ (50자 이내) _____ 때문이다.

1월 8년 도학 교경 대년북 논) 술(A

가계의 경제 활동에서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어난다. 국민 경제의 차원에서는 국민 모두의 소득을 더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의 총액 또한 증가한다. 그런데 이때 소비가 늘어나는 정도는 대개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미치지 못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늘어난 소득 가운데 일부는 소비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저축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케인스는 국민소득 가운데 소비로 지출되는 비율을 '소비성향'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부가 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지 분석하였다.

우리가 국민 경제를 하나의 전체로 보면 경제 안에서 어떤 이가 재화와 용역의 구입을 위해 자신의 소득을 지출할 때 이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장장이에게 소득이 생긴 이유는 대장장이가 생산한 칼을 목공이 구입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은 기본적으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요'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된다.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다. ㉠ 예컨대 정부가 100억원을 들여 공공 시설물을 건립한다면, 정부가 지급하는 100억원은 결국 정부에 시설물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업체들의 근로자와 주주 등에게 나누어져 그들의 소득이 된다. 그런데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 100억원 가운데 일정 부분은 소비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소비성향이 0.8이라면 이들은 80억원을 소비에 지출할 것이다. 그러면 이 80억원은 다시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소득의 원천이 된다. 여기까지 보면 100억원의 정부 지출로 국민소득이 180억원 발생했다.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면 일정 기간 동안 국민소득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한편 케인스는 소득 수준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은 소비성향도 서로 다르며 특히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비성향이 크다고 보았다. 이는 누구든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의 소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케인스의 견해가 옳다면, 계층에 따른 소득 격차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은 형평성을 개선하는 외에 추가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가령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각각 0.6과 0.9이고 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로 100억원을 확보하여 이를 저소득층의 지원에 쓴다고 하자. 이 경우 고소득층은 소득이 100억원 줄어들어 원래 소비에 썼을 60억원을 지출하지 못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늘어난 소득 100억원 가운데 90억원을 새롭게 소비에 지출한다. 즉 경제 전체로 보면 소비가 3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결국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지 않더라도 소득 재분배를 통해 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국민소득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5-1. <보기 1>은 ㉠에 대한 진술이다. (ㄱ)과 (ㄴ)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점)

교사모 0의
여기서 우리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폭과 비교하면 그로 인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폭이 (ㄱ) 점과, 소비성향이 클수록 이러한 효과가 (ㄴ)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ㄱ) 더 크다는 / 더 작다는
- (ㄴ) 더욱 확대되는 / 더욱 축소되는

5-2. <보기 2>에 나타난 주장을 비판하되, ㉡을 활용하여 논거를 제시하시오. (80자 이내) (40점)

교사모 1의
가계나 기업이 먼저 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화와 용역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는 오직 정부만 남게 된다. 이런 경우 국민소득의 증가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년 8월 도학 교경 대년복 논) 술(A

(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허위 사실 유포, 악성 댓글, 유언비어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정당화하게 되므로 악의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표현물까지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악성 댓글 등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 한편 악성댓글 등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타인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므로 그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옳다고 보기 어렵다.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비도덕적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악성 댓글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른바 인터넷상 ‘본인확인제’라 할 수 있다.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더욱 책임 있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이러한 제도는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한 것일 뿐,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 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는 이용자들을 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보호할 경우 악성댓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면 스스로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 ‘개방성’, ‘공개성’, ‘파급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지지되어야 한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유로서,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인터넷상 ‘본인확인제’, 즉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익명표현의 자유에서 오는 순기능을 억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악성댓글과 같은 사이버공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럴 경우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도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현실세계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

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양심적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 이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보복당할 위험이 낮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6-1. 다음은 ㉠의 판단이유를 밝힌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다. 빈칸 (㉡)과 (㉢)을 채워 넣시오. (20점)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하려는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의 (㉡)을 /를 제한하고, 동시에 게시판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역시 제한한다. 그 밖에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및 보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을/를 제한한다.

(㉡) _____
 (㉢) _____

6-2. <보기>의 ㉠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거를 뒷글에서 찾았다면 (가)와 (나) 가운데 어느 것을 논거로 해야 하는지 선택하고, 논거의 핵심을 각각 1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50점)

과다모의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부분이였다. 공직선거법이나 게임산업법 등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 과몰입(게임중독)’ 방지 등을 이유로 게임 이용자의 실명과 연령, 본인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게임 섯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을 우려해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로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인터넷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한다. 게임 섯다운제를 적용하려면 실명 인증이 꼭 필요하다. 이 때문에, 게임산업법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할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학부모 단체 등이 이 제도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게임 이용자와 게임산업협회 등은 게임 섯다운제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면서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1) 찬성론의 논거: (가) / (나)

(2) 반대론의 논거: (가) / (나)

